간행물윤리위원회, 〈제44차 청소년 권장도서〉 선정 · 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윤양중)는 〈제44차 청소년 권장도서〉 40종을 선정 ·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책은 ▲문학(5종)—《이윤기가 건너는 강》(이윤기, 작가정신) 외. ▲역사(4종)—《한국 고대사, 그 의문과 진실》(이도학, 김영사) 외. ▲철학(4종)—《신화 속의 여성, 여성 속의 신화》(장영란, 문예출판사) 외. ▲정치(3종)—《자유주의에 관한 짧은 에세이들》(김만권, 동명사) 외. ▲경제경영(3종)—《열보다 더 큰 아홉》(정갑영, 매일경제신문사) 외. ▲사회(3종)—《아마테라스에서 모노노케 히메까지》(박규태, 책세상) 외. ▲과학(4종)—《꼬마 수학자들의 축제(1~2)》(필립 불랑제, 김희숙, 맑은소리) 외. ▲예술(3종)—《한국의 마애불》(이태호 외 글 · 유남해 외 사진, 다른세상) 외. ▲교양(5종)—《배를 타고 아바나를 떠날 때》(이성형, 창작과비평사) 외. ▲아동(6종)—《우리나라 오천년 이야기 생활사 1》(원영주 글 · 정진희 그림, 계림) 외 등이다. | 669-0772 | www.kpec.or.kr

출판협회, 제25회 출판포럼 열어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는 한국출판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난 12월 20일 오후 2시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한계에 이른 반품도서, 해결책은 없는가'를 주제로 제25회 출판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날로 증가하는 도서 반품의 실상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합리적인 반품량 억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열렸다. 한국출판유통 이중호 경영기획부장이 주제발표하고 한국출판인회의 김형성 유통대책위원장, 민족사 윤재승 대표,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기호 소장 등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 735-2701 | www.kpa21.co.kr

출판연구소, 〈2001 한국출판평론 · 학술상〉 발표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윤청광)는 〈2001 한국출판평론 · 학술상〉 수상자를 선정 · 발표했다. 출판평론 활성화와 출판연구 진작을 위해 지난 1996년부터 매년 공모제로 시행해온 이 상의 올해 수상자는 출판학술상 부문 최우수상에 이종국 혜천대 교수, 우수상에 이기성 계원대 교수, 학위논문 우수상에 한림출판사 한주리씨, 서울대출판부 권영자씨, 방송통신대출판부 김정규씨, 출판평론상 부문에 도서평론가 이권우씨 등 6명이 선정됐다. | 739-9040

| 한국서련 · 출판협회 공동 집계 |

베스트셀러 종합순위(2001.12.9~12.15)

순위	제목	저자	출판사	분야
1	괭이부리말 아이들	김중미	창작과비평사	소설
2	오페라의 유령	가스통 르루	문학세계사	소설
3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스펜서 존슨	진명출판사	비소설
4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1	조앤 K. 롤링	문학수첩	소설
5	잭 웰치 · 끝없는 도전과 용기	잭 웰치	청림출판	비소설
6	The Blue Day Book	브레들리 트레버 그리브	바다출판사	비소설
7	등대지기	조창인	밝은세상	소설
8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신화	토머스 불핀치 외	가나출판사	비소설
9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달라이 라마 외	김영사	비소설
10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신화	이윤기	웅진닷컴	비소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 강연회 열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길융)는 지난 12월 18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대강당에서 경희대 법대 이상정 교수를 초빙해 '교육목적 이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교육을 목적으로 한 저작물을 이용할 때의 문제점들을 집중 조명해 교과용 도서 출판사들과 저작물 신탁관리업체 등의 관계자들에게 저작권에 관한 이해를 돕고 업무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669-9942 | www.copyright.or.kr

한국문학번역원, 〈제5회 한국문학번역상〉 시상식 열어

한국문학번역원(원장 박환덕)은 지난 12월 10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5회 한국문학번역상〉 시상식을 열었다. 수상자와 수상작은 ▲번역상(5편)—김종운/브루스 풀턴 《A Ready - Made Life》(영역 《레디메이드 인생》 외 한국단편선), 김아정/로버트 그레이브즈 《The Metacultural Theater of Oh T' ae-sok》(영역 《오태석 희곡집》) 등이며, 프랑스 악트 쉬드 출판사가 특별상을 수상했다.

| 732-1442 | www.ltikorea.net

'책따세', 청소년 권장도서 목록 발표해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대표 허병두)이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 권장도서' 23종을 선정 · 발표했다. 선정된 도서는 ▲《싸우는 아이》(손창섭, 우리교육) 외(중1부터) ▲〈한국생활사박물관〉(한국생활사박물관편찬위원회, 사계절) 외(중2부터) ▲《부시맨과 레비 스트로스》(최 협, 풀빛) 외(중3부터)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박원순, 한겨레신문사) 외(고1부터) ▲《신갈나무 투쟁기》(차윤정 외, 지성사) 외(고2부터) 등이다. | 716-2980 | club.dreamwiz.com/elibrary

제313호 〈연재퀴즈〉 정답 및 당첨자 발표

정답 : 이 땅에 태어나서

당첨자 ▲민경주 · 서울 구로구 개봉1동 ▲김학걸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이원경 · 경기 성남 수정구 태평동 ▲김진희 · 전북 고창군 고수면 ▲이상신 · 경기 김포시 북변동

새해부터는 《출판저널》 내부 사정상 〈연재퀴즈〉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연재퀴즈〉를 사랑해주신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1회 '출판인의 밤' 열려

지난 12월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인의 밤'에서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언호)가 제정한 제1회 '올해의 출판인상' 시상식이 열렸다. 본상 부문에 사계절 강맑실 대표가, 공로상 부문에 까치글방의 박종만 대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언호, 전병석, 이기웅 등 총7명의 출판계 중진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선정이유에서 강맑실 대표가 대중교양물 기획에 탁월한 감각을 발휘하고 젊은 국내필자를 많이 발굴했으며, 〈한국생활사박물관〉 시리즈의 경우 사내에 상설부서를 두고 출판사 역량을 배양하는 등 기획출판의 모범을 보인 점을 높이 평가했다. 박종만 대표는 30여년간 인문 · 사회 · 자연과학 분야의 양서를 번역출판하는 외길을 걸으며 치열하게 현실을 반영해왔고 당대인들의 지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을 치하했다. 각 수상자를 만나 수상소감과 출판관을 들어봤다.

"출판은 불특정다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강맑실 사계절 대표

수상소감은?

"첫해 수상이라 부담이 크다. 젊고 뛰어난 출판인들이 많은데 나에게 상을 준다는 소식을 듣고 부끄러웠다. 사실 수상거부까지 생각했으나,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출판사에게 주는 상이라고 생각해 고맙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어떤 점이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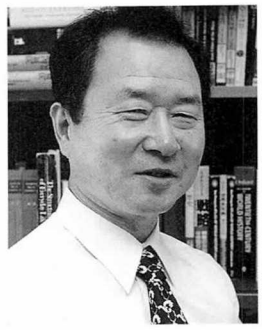
"아마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획출판에 매진한 점을 생각해 주신 것 같다. 한두가지 더 있다면 중앙아시아와 한국고대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318 문고〉 등 남들이 잘 가지 않은 길을 걷고, 마케팅에 노력을 기울여 고급 기획출판을 기업의 이윤창출과 적극적으로 연결시켰다는 점인 것 같다."

출판에 대한 소신이 있다면?

"출판은 불특정다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독자의 입맛에 맞게 기획하고 제작하고 홍보하는 일은 누구나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보다는 독자에 대한 사랑이 출판인의 삶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요하다. 출판의 원칙을 지키고 독자와의 약속을 제대로 실천하는 자세에서 진정한 이해와 사랑이 싹튼다고 말하고 싶다."

"축소재생산은 아니니 얼마나 다행인가"

박종만 까치글방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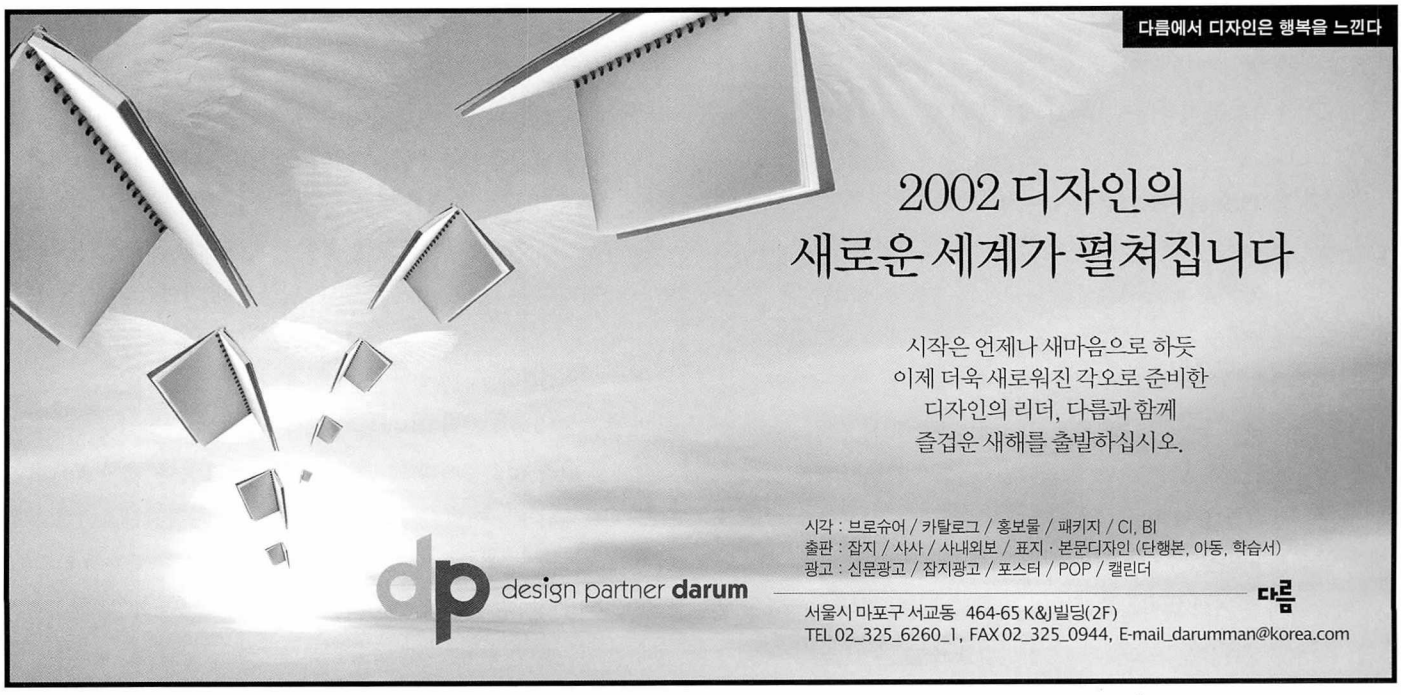


후배가 더 큰상을 받았는데…

"당연하다. 노력하고 투자하는 젊은이에게 줘야지 나 같은 '퇴역'에게 상이라니 당치도 않다. 국내 기획물을 많이 펴냈어야 했는데, 번역물에만 의존한 점도 사실 비판의 대상 아닌가? 돈도 많이 못 벌면서 현상유지하는 게 기특해서 주는 상이라고 생각하겠다."

그래도 까치글방은 우리에게 각별한 출판사다.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하지만 일부러 겸손하려는 것이 아니고, 상을 받는다는 게 정말 부끄러울 뿐이다. 오죽했으면 집사람도, 출판사 직원들도 시상식장에 오지 못하게 했겠나."

30년 외길로 출판에 매진한 것이 높은 평가받은 듯하다.

"모르는 소리다.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분야 저 분야 손을 대봤지만, 돈 벌기가 참 힘들다는 사실만 깨달아야 했다. 인간의 행위는 확대재생산을 지향하는데, 나는 기껏 단순재생산만 하고 있다. 그래도 축소재생산은 하지 않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래서 내 일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강성민 기자